

중국 科幻의 사회 문화적 의미에 관한 小考

권혜진*

<目次>

I. 서론	2. 科幻으로의 전환과 그
II. 科學과 전통적 사유의 재회	사상적 의미
1. 科學小說과 科幻小說의 爭	III. 결론을 대신하여

I. 서론

지난 날 중국 Science Fiction¹⁾이 겪어온 풍파는 중국 문단에서 찾아보기 힘든 진귀한 현상이다. 물론 오늘날 중국 과학이 세계무대에서 맹위를 떨치는 데 있어 劉慈欣(2006)이라는 작가의 기여가 결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중국 과학의 발전이 한사람에 의지해 나온 결과라는 말도 나왔지만, 청말에서 시작된 과학을 소재로 한 창작행위는 신중국의 건립, 四人幫의 실각 등 굵직한 사건의 영향 속에 침체와 발전을 반복하며

* 고려대학교 강사

1) 중국에서는 서구에서 수입된 Science Fiction에 대한 번역으로 “과학소설(科學小說)”과 “과학(科幻小說)”의 역어를 사용해 왔다. 일반적으로 科學小說은 청말의 SF를 가리키고 있으며 科幻小說은 신시기 이후 當代 작품을 가리킨다. 그러나 SF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들 용어 사용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에도 끊이지 않는 화두이다. 본 논의에서는 서구 SF의 영향 아래 ‘과학’을 요체로 시작된 창작을 SF로 통칭하며, 시기별 SF는 각각 과학소설과 과학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용어 논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수차례의 황금기를 지나온 역사가 있다. 그럼에도 청말 과학소설은 當代 중국 과학이 이룩한 오늘을 이야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왔을 뿐, 과학은 자신이 지나온 역사적 페이지 속에 그것이 자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는 현재 SF에 대한 역어로 중국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과학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사실이다. 그 결과, 當代 중국 과학사에는 중국 SF가 지닌 독특성, 그 창작 이면의 시대적 가치와 연관되는 복잡한 요소가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고 만다. 동시에 그것은 중국에서 과학소설 혹은 과학을 선택할 것인가의 화두가 단순한 용어 선택을 둘러싼 각축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중국에서 과학이 갖는 의미에 대해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과학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온 중국 사회와 작가 그리고 독자라는 갖가지 사회 관계에 대한 종합²⁾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서구 과학사를 돌아볼 때 그것 역시 굴곡진 발전을 경험했고, 시대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작가군 및 독자에 의지하는 등의 특징이 발견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앞선 내용을 중국 과학의 특수성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루어진 창작 내용 즉, 서구가 문명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강한 믿음에 기반한 과학 기술 서사에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같은 개념을 다뤄도 문화의 쇠퇴에 대한 불안과 희생의 잠재력에 더욱 관심을 둔다는 사실³⁾에 주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일각에서는 當代 중국 과학의 특징을 입체적인 인물이나 풍부한 줄거리에 있어서의 취약성으로 요약하며 그것이 전통적 우화의 생명력을 계승해내는 독특성 즉, 哲理를 이야기함으로써 초래된 결과라는 분석으로 서구와의 명확한 선 긋기에 나서기도 했다. 그것이 독자들을 ‘철학’의 근본이 되는 형이상학에 대한 사유로

2) 王川, 〈中國科幻小說興衰略論〉, 王泉根主編, 《現代中國科幻文學主潮》, 重慶出版社, 2011, 290頁.

3) Wu, Yan, “‘Great Wall Planet’: Introducing Chinese Science Fiction”, translated by Wang Pengfei with Ryan Nichols, *Science Fiction Studies* 40.1, 2013:5.

이쯤으로써 ‘과학’ 본연에 대한 물음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다.⁴⁾ 2017년, 〈지난 수년간 중국 SF는 서구 주류 SF와는 다른 길을 걸어온 것인가? 這麼多年, 中國科幻走上了一條和西方主流科幻不同的道路?〉의 제목 아래 쓰인 상기 내용은, 오랜 시간 중국에서 과학이 나라 부강을 위한 “가치체계의 선택”이라는 문체와 연관된 사상적 개념으로 존재해 온 것처럼, 중국이 다시 한 번 과거와 똑같은 시대적 요구 속에 놓여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 孔敎의 지위를 복권하고 國學 장려를 기반으로 환경과 발전의 조화를 강조하는 習進平의 생태 이념이 물질과 정신적인 측면의 공동 富裕를 실현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⁵⁾ 역시 이미 중국이 가치관의 측면에 있어 전환의 길에 들어섰음을 말해주고 있다. 오늘날 그것이 科學 社會主義의 ‘中國化’로 불리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국에서 當代 과학에 내함된 과학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해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보편과학을 주장했던 Joseph Needham의 연구⁶⁾에 기준해 사유해볼 수 있다면, 당시 중국인의 문화를 지배하던 格致의 사유체계는 當代에 이르러 현대 과학을 향한 서구의 과학적 사유와 제대로 된 융합을 이루어 냈는가의 물음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서구의 근대 과학이 중국 유신파와 변법파의 노력으로 보편적인 道의 위상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고는 해도, 상당 기간 정치적 공리주의의 희생양이 되어 온 중국 SF가 지나온 역정을 살펴본다면, 온전한 형성이 없이 도달한 황금기 속에서 當代 중국 과학을 지탱하는 과학 사상의 핵심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

4) 姜維端, 〈這麼多年, 中國科幻走上了一條和西方主流科幻不同的道路?〉, 《澎湃新聞》, 2017年 8月18日.

5) 張雲飛, 李娜, 〈習進平生態治理新理念的科學意蘊〉, 《湖湘論壇》, 2016年, 9頁. 상기 논문은 2015年度 教育部 人文社會科學 重點 研究 基地 重大 項目 中 《社會主義 生太 文明的 倫理 訴求》에 해당하는 단계성 연구 성과이다.

6) 劉鈍·王楊宗編, 《中國科學與科學革命: 李約瑟難題及其相關問題研究論著選》, 遼寧教育出版社, 2004年 참고.

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當代 과학을 “억압된 현대성”의 한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주목할 수 있다. 當代에 이르러 화려하게 제기한 과학은 지난 날 중국 문학이 걸어온 발전사가 청말 시기 촉발된 학문의 다양한 목소리를 단순화하고 제거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當代 과학은 청말 시작된 현대화의 시도가 다시 백 년 전의 출발점으로 되돌아왔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⁷⁾ 그러나 當代 과학의 명맥을 청말 과학소설에서 찾으려 한 시도가 과학소설 혹은 과학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문학사를 절단하는 기존 중국 과학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자못 아이러니하다. 이는 중국 과학사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사실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연구가 중국 과학에서 정치적 공리성이라는 요소를 축출해 내는 데 지나치게 집중해왔음을 반증해주는 일례라 볼 수 있겠다. 과학을 구원해 내려는 연구자들의 노력이 아직 세부까지 뻗어 나아가지는 못한 것이다. 본 논자는 중국 SF史에 대한 논의가 중국 當代 문학의 방향성 논쟁과 유사한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當代 과학이 중국 문학의 현대화 과정에 있어 진보와 퇴보(침체) 모두를 상징하는 징표가 된다면, 중국 SF史에 관한 논의는 최초로 과학소설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던 1898년을 시작으로 當代 과학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몸체 안에서 실패와 발전을 거듭하며 동일한 역사를 공유해 온 하나의 문학지류라는 전제하에 출발해야만 할 것이다.

과학이 현대 중국 사상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틀림없는 근대화의 새로운 산물”로 사유된 과학소설이 수입된 시기에서 시작해 과학이라는 명칭이 정착되기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선행될 때에야 비로소 중국의 사회 발전과 보조를 맞추어 온 중국 SF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 가능해질 수 있다. 혹은 과학 혹은 과학소설이라

7) 왕더웨이 지음, 김혜준 옮김, 《시노폰 담론, 중국문학》, 학고방, 2017, 17-87쪽.

는 용어 사용을 두고 논쟁을 벌일 가치도 이유도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오늘날 뜨거운 국제적 관심 속에서 중국 과환이 서구 과환과 변별되는 고유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 사회적 의미 속에서 그 내재적 가치를 되새길 수 있다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에 본 논문은 오늘날 전에 없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의 과환 그리고 유토피아적 요소가 담긴 習進平 체제가 제시하는 “中國夢” 사이의 의미에 다가서기 위한 하나의 인문학적 탐색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이상적인 정치 문화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강력한 정치체로 거듭나고자 하는 習進平 체제, 이에 호응해 當代 지식인에 만연한 들뜬 “감정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⁸⁾ 속에서 當代 “科幻熱”이 의미하는 사회 문화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II. 科學과 전통적 사유의 재회

1. 科學小說과 科幻小說의 爭

習進平 집권 후 정치적 통제가 더욱 격렬해진 상황 속에서도 인문학에 대한 많은 투자가 진행되어 온 것은 당이 주도하는 정치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 지식인들이 행하는 문자의 영향력이 크게 증시되었기 때문이다.⁹⁾ 물론 상당한 지원이 국학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기회 삼아 인문학자들에게 이전보다 더욱 많은 발언의 기회가 주어진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그 중에서도 최근 과환의 개념 및 수용과

8) 하버드대학 중국연구소 지음, 이은주 옮김, 《하버드대학 중국 특강》, 미래의창, 2018, 356-357쪽 참고.

9) 習進平은 孔子 탄생 256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유가 사상과 중국 역사상 존재해 온 학설이 ‘經世致用’의 원칙을 견지하며 ‘文以化人’의 교화 기능에 치중해 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개인과 사회에 대한 교화를 국가에 대한 통치와 결합하여 상보적으로 촉진하려는 목적을 달성해야 함을 연설한다. 習進平, 〈在紀念孔子誕生2565周年國際學術研討會暨國際儒學聯合會第五屆會員大會開幕會上的講話〉, 《人民日報》 2014年 9月25日 참고.

관련한 주제가 연이어 국가 사회과학 기금 항목으로 채택된 것은 중국 과학에 대한 지식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 의지를 반증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서구에서 유래한 Science Fiction을 과학 혹은 과학소설로 부를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전문 SF 평론가나 작가뿐 만이 아닌 기타 영역에서도 논의되기에 이르러 번역의 범주로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그 중 과학은 SF에 대한 번역 용어라는 사실을 전제로 과학소설은 의역으로, 과학은 직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분석에 주목할 수 있다. 필자에게 있어 번역의 문제가 원문의 문화적 함의와 직결되고 있는 만큼 과학이라는 용어는 다국적 교류활동이라는 번역 행위를 벗어난 결과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필자는 SF의 사용 취지가 처음에는 과학성을 강조하는 데 역점을 둔 것이었다고는 해도 scientific-tion, scientifiction 그리고 Science Fiction으로의 변천과정을 통해 초자연소설을 총칭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들 초자연소설 속 환상적인 요소는 분명한 과학 사실 혹은 과학적 논리에 따라 작가가 과학과 관련된 환상적 기적을 표현해 내려한 데 따른 결과로서, 초자연적 환상과 과학이라는 두 가지 요소 속에서 과학은 결정적 작용을 하고 있다 결론내리고 있다. 즉, 과학을 핵심으로 파악되는 세계의 진실은 SF가 수반하는 근본적 특징이자 다른 초자연적 소설과 구분되는 근본적 상징이라는 것이다. 그의 논의를 다시 한 번 요약하자면, 과학이라는 역어는 SF에 대한 표면적인 해설로서 그 전문 용어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문화적 함의를 체현해 내지 못한 결과이다.¹⁰⁾ 그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의 몫이지만 그동안 중국에서 용어를 둘러싼 이론적 접근이 서구 SF의 역사를 제대로 삼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본다면, 그가 현 중국 SF사에 존재하는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냈다는 부분에서만은 동의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과학을 문화적으로 접근하려는 이 같은 노력에 견주어 그동안 중국에서 진행되어 온 SF 개념을 둘러싼 몇 가지 논의를 살펴볼 필

10) 黄褰善, 〈是“科幻小說”, 还是“科學小說”〉, 《上海科技翻譯》 4輯, 2003, 42-44頁 참고, 논자 강조.

요가 있겠다.

먼저 중국 SF가 과학소설과 과학환으로 갈라선 것은 1966년 汪志가 과학소설에 대한 개념을 정식으로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과학소설 논문집 《論科學小說》(1989) 1장에서 과학소설이란 소설이 갖춰야 할 모든 요소에 부합하면서 과학에 의거한 장르라 정의 내린 바 있다. 동시에 좋은 과학소설이란 사람들에게 정신적 격려와 예술적 즐거움 그리고 과학적 지식을 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과학소설의 구체적인 과학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시대정신이 기초가 되어야만 한다고 밝히고 있다.¹¹⁾ 葉永烈은 각각 “현실적인 과학”과 “환상적인 과학”으로 양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분법은 현재 대다수의 중국 지식인 사이에 공유되는 답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 과학환은 과학 기술이나 물리적 가설에 대한 중요성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軟科幻 혹은 硬科幻로 나는데, 문제는 두 형식의 과학환에 대한 텍스트 분석이 진행될 경우 양자는 상기 제시된 모호한 개념 정립에 의해 각기 다른 유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데 있다. 오늘날 청말 작품이 연구자에 따라 때로는 과학소설로 때로는 과학환으로 불리며 인식 상의 통일을 이루지 못한 모습이 관찰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중국 SF의 선구적 비평가로 회자되는 吳岩은 汪志, 葉永烈과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 서구에 정착된 SF의 용어는 처음 scientific romance, science fantasy, impossible story, scientifiction, astound-ing story 등의 다양한 용어가 결국 SF로 공식 인정된 결과라고는 해도 정작 이러한 서구의 SF라는 개념 속에는 ‘환상’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吳岩의 논의는 과학환이라는 용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주로 내용과 형식상의 변화에 기준한 과학환 개념을 정의하는 네 가지 부류에 집중하여 전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그는 자신이 광의적 認知 관점을 견지하는 부류에 동의하는 입장에 있음을 수

11) 汪志, 《論科學小說》, 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89, 1-15頁 참고.

차례에 걸쳐 강조하면서, 한 서구 이론가의 주장을 인용해 과학을 충족시키는 필수 조건은 ‘소외’와 ‘認知’의 상호작용으로서 ‘認知’란 理性적인 이해에 대한 추구이며 ‘소외’는 그것의 주체를 인식도록 이끄는 과정을 통해 낯설게 보이도록 하는 표현이라 부연하였다. 즉, 과학이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사고와 갈망을 표현한 文類로서 ‘잠재의식’에서 촉발된, 공포와 희망을 통해 전달되는 과학(객관우주)에 대한 일종의 종합적인 정서와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이 그의 기본 입장이다.¹²⁾ 그러나 SF에서 미래란 일종의 은유라는 관점¹³⁾에서, 또 중국 當代 과학의 특징 중 하나가 미래가 아닌 과거로의 역행을 통한 대체 역사의 역할이라는 주장¹⁴⁾에 근거해 본다면 중국 과학의 시제를 미래로 규명하는 위에 정립된 그의 인식은 분명 재고될 여지가 있다 하겠다.

과학을 바라보는 吳岩의 견해는 초기 중국에 유입된 서구 SF와 중국 과학소설과의 얽은 관련성을 지적했던 陳平原의 주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陳平原은 만청 과학소설은 인류의 미래 세계에 대한 염원을 대표하는 정치소설로 간주될 수 있어 집단성에 대한 상징에 지나지 않았다 분석하면서,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은 현실 상황에 상당한 제한을 받았다. 현실에 대한 불만은 다양한 이상을 촉진해 냈지만 결코 모든 이상이 모두 고상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말로 청말 과학소설에 상당히 낮은 평가를 내렸다. 그는 청말 과학소설가에게 요구되었던 과학 지식에 대한 부족은 물론 당시 格致學과 과학소설 간의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과학소설의 공리성으로부터 그것이 부진했던 원인을 찾고 청말 과학소설과 當代 과학을 변별

12) 吳岩, 〈論科幻小說的概念〉, 《昆明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第26輯, 2004, 5-8頁 참고, 재인용. 논자 강조.

13) 미국의 SF 작가 Ursula Le Guin는 1976년 *The Left Hand of Darkness* 서문에서 모든 과학과 기술, 그리고 역사적 견해들로부터 가져온 새로운 은유(미래)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Science Fiction이라 쓰고 있다. Ursula Le Guin K., *The Left Hand of Darkness*, New York: Ace Books, 1976, 2-6.

14) Janice Liedl, “Tales of futures past: Science Fiction as a historical genre”, *Rethinking History* 19.2, (2015): 285-299.

짓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科學小說의 本意가 과학을 근거로 환상하거나 혹은 과학에 부합하는 허구(scientifiction)로 이야기 되는 것인 바,¹⁵⁾ 당시 청말 작가들은 이러한 과학소설의 조건을 제대로 구현해 내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만청 시기 서구에서 science stories, scientific fantasias, scientific romances 등의 명칭을 사용할 뿐 SF의 용어가 정착된 것이 20세기 20년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진 일이라고는 해도, 당시 중국 지식인들이 번역한 서구 소설들은 미래 세계, 미지의 공간과 생명체 심지어 문명 시대에 붙어 닳친 위기 등을 소재로 삼는 오늘날 SF의 범위에 부합하는 내용들이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즉, 청말 과학소설이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인 면에서 오늘날 서구의 SF에 완전히 부합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것이 서구 동류 소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중국 지식계의 점차적인 수용과 선택을 통한 이데올로기의 영향의 산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¹⁶⁾ 게다가 청말 과학소설이 근대 과학문명에 대한 우려감의 표출과 관계하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사유로 인도하기 위한 텍스트적 실천이라는 주장¹⁷⁾에 비추어볼 때, 그것이 단순히 과학구국이라는 시대적 사명 속에 묻히는 현상 또한 문제적이다.

臺灣 과학소설의 선구자 黃海 역시 과학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것을 문학과 과학 사이에서 피어난 우언, 동화, 신화, fantasy 그리고 과학소설, 과학보급 소설을 넘나드는 새로운 문학 장르로 정의한다. 과학이란 개념상 超현실, 超과학에 대한 합리적인 상상¹⁸⁾으로서 정치성이 농후했던 청말 과학소설과는 구분되는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

15) 陳平原, 〈從科普讀物到科學小說—以“飛車”爲中心的考察〉, 吳岩主編, 《賈寶玉坐潛水艇—中國早期科幻研究精選》, 福建少年兒童出版社, 2006, 155-158頁. 논자 강조.

16) 張治, 〈晚清科學小說芻議—對文學作品及其思想背景與知識視野的考察〉, 《科學文化評論》第6卷 第5期, 2009, 1頁.

17) 서유진, 〈근대의 황홀과 공포—청말 민초 공상과학소설과 망국멸종의 환상서사〉, 《중국현대문학》 제84호, 2018, 25쪽.

18) 黃海, 《臺灣科幻文學薪火錄(1956~2005)》, 五南圖書, 2007, 2-5頁.

는 여기서 ‘fantasy(幻想)’가 비현실적인 일이나 현실 영역 밖의 일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으로서 ‘지각의 대상을 심적으로 이해하는 일’¹⁹⁾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黃海가 과학을 빈틈없는 理性적인 것으로, 또 과학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로 이해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⁰⁾ 물론 중국어의 幻想은 영어의 fantasy를 직역한 것이어서 영어의 함의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黃海가 과학을 “과학적인 상상 혹은 합리적인(초현실적) 상상의 회극화”²¹⁾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가 이해하는 과학이란 과학의 이성적인 면과 인과율이 지배하지 않는 형이상학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말할 수 있다.

요컨대, 吳岩을 비롯한 중국 지식인들이 서구 SF에서 유래한 청말 과학 소설과 과학의 정의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만은 자명하다. 나아가 용어 문제를 화두로 드러나는 진실에 주목할 때, 이들은 다만 서구 SF를 왜곡해 적용한 청말 과학소설을 SF라는 文類에서 배제함으로써 當代 과학과의 분명한 선긋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오랜 시간 과학이라는 핵심어로 명맥을 이어 온 중국 SF의 역사를 절단하고 단순화하려는 오류를 범하는 지식인들의 행위가 서구 SF의 전면적 영향 하에 놓여있던 청말과 當代를 구분 지으려는 지식인들의 자민족적인 행위로 소급될 수는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수많은 연구자와 작가가 과학에 새로운 정의를 내림으로써 그것을 當代에 나온 하나의 새로운 文類로 간주하고자 했다는 분석²²⁾에 근거해볼 때에도, 왜 중국 과학은 근대 문학에 관한 한계성을 지적하는 데 초점 맞추어진 기존 문학계의 폐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지 그 근본적 원인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19)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fantasy>.

20) 黃海, 앞의 책, 7쪽. 논자 강조.

21) 黃海, 앞의 책, 5쪽.

22) 王逢振, 〈科幻小說及其發展〉, 《出版廣角》 第2期, 1999. 王泉根主編, 앞의 책, 58-59頁 수록.

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앞선 논의를 이어가자면, 지금까지 제시된 연구자들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다. 만청의 과학소설은 소설의 형식에 기반한 자연 과학에 대한 상식을 기술하는 입장에서 과학 계몽에 목적을 두고 쓰인 것이니 “科學啓蒙小說”이라 할 수 있고, 當代 과학은 과학의 기초 위에 환상 소설을 구축해 낸 것으로서 “科學幻想小說”로 불러야만 한다.²³⁾ SF의 발원지인 영국과 미국에서도 SF라는 한 가지 용어를 사용할 뿐, 과학소설과 과학 환상소설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는 해도 과학소설이 쓰는 것은 “현실적인 과학”이지 “환상적인 과학”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양자는 구분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최초로 중국 과학 이론을 수집 편찬한 《現代中國科幻文學主潮》(2010)의 내용에 근거해 보아도, 일찍이 當代 지식인들 사이에는 “科幻(과학 환상)=현실적인 과학+합리적인 추리”라는 도식이 성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가 사회과학 기금 항목으로 선정된 賈立元의 연구는 當代 이래 과학에 대한 통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할 수 있다. 그는 “科學空想小說”의 개념이 처음 쓰인 것은 1931년 8월 15일 《當代文藝》에서 외국 작가의 작품이 소개된 시점이며, 이 용어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도 신시기 이전인 1946년 8월 15일 《申報》를 통해 서였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²⁴⁾ 물론 만청 시기 소설 유형을 구분하는데 있어 제기된 명칭상의 임의성²⁵⁾의 문제를 고려할 때나 서구의 SF 용어

23) 吳獻雅, 〈科學幻想與科學啓蒙—晚清“科學小說”研究〉, 吳岩主編, 《賈宝玉坐潛水艇—中國早期科幻研究精選》, 福建少年兒童出版社, 2006, 37-45頁.

24) 賈立元는 20세기 중국 과학의 이식과 발생에 대해 좀 더 제대로 된 분석을 이행하려면 언어학과 개념사의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漢語 속에서 과학 소설 개념의 변천을 고찰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말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상당한 페이지에 걸친 그의 논지를 흐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賈立元, 〈晚清科幻小說概念辯析〉,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17, 77頁.

25) 栾偉平은 책에서 만청시기 과학소설이 理想 소설, 冒險 소설, 工藝實業 소설, 海峽(滑稽) 소설 등의 다양한 유형에 포함되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당시 과학

사용에 대한 역사상의 연원을 추적해 볼 때, 당시 “科學空想小說”의 용어가 쓰인 배경에 대한 분석이 간과된 채 반대 입장에 선 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만도 없다. 다만, 20세기 초의 과학소설이 1931년에 이르러 “科學空想小說”로 소개된 이면에는 유물사관에 압도되었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중국에서 과학소설 창작이 채 무르익기도 전에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것도 그것이 救國을 전면에 내세우지도, 또 근대적 지식 전달이라는 본래적인 기능에 충실하지 않음으로 사회의 인정을 받기에는 모호한 위치에 있던 탓이 크지 않았던가. 다시 말해, 科學小說에 ‘空想’이라는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상상’이라는 의미가 부가된 것은, 와해되어 버린 전통 문화와 사상 구조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등장한 과학의 절대적 가치를 내세운 시대상이 가져온 결과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陣獨秀가 보수적인 것이 아닌 진취적이고 또 공상적인 것이 아닌 과학적인 것을 주장하며 중국 전통 사상을 비판했던 사실에서 시작해, 1934년 중국에서 처음 등장한 科學小品으로 관심을 모은 半월간지 《太白》이 《論語》와는 반대 입장에 섰던 사실로도 증명될 수 있다.²⁶⁾ 당시 科學小品은 국가의 존망이라는 시급한 사안 앞에 과학 지식의 대중화를 기치로 사회의 과학 수준을 고양하는 데 목적²⁷⁾을 둔 반면, 《論語》는 지식인 스스로 사회적 임무를 포기한, 시의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여겨진 유머를 기치로 하고 있었다.²⁸⁾ 요컨대, “空想科學小說”이라는 용어가 과학을 기반으로 ‘환상’ 요소가 추가된 창작을 의미할 뿐이라면, 1930년대 민국시기 사용되기 시작한 “空想科學小說”이라는 명칭은 1923년 “科玄論爭”에서 실패한 형이상학파가 실은 중국인의 문화 속

소설에 대한 구분법이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적고 있다. 栾偉平, 《小說林社研究(下)》, 花木蘭文化出版社, 2014, 205-206頁 참고.

26) 萬一知, 〈魯迅與太白半月刊〉, 《廣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0, 46頁.

27) 華道一, 〈科學小品和大眾教育〉, 《太白》 1(11): 514-516, 1935.

28) 穆木天, 〈心境主義的文學〉, 《平凡集》,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 1-13頁.

에 면면히 존재해 왔음을 방증하는 일례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1930년대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들이 유가 철학의 관념론적 경향을 비판하면서도 양자의 서로 다른 성질 결합에 의한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중국화를 정립하고자 했던 것처럼²⁹⁾, 오늘날에 이르러 계승되고 있는 실사구시적인 태도로 확인되는 사실 또한 중국 사회 속 전통 철학의 끈질긴 생명력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수십 년의 시간차를 두고 나온 과환 속 환상을 이야기하는 當代 지식인들의 사유를 근거로 지속될 수 있다. 먼저 鄭文光(1979)은 신화가 신기한 仙境과 허구적인 세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현실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과환이란 바로 이러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 혹은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상의 개조”라 정의한 바 있다.³⁰⁾ 周揚(1984)은 ‘신화’를 과학이 아니지만 과학성이 내재한, 미신처럼 “좋지 않은 것”과는 구분되어야만 하는 영역으로서 신화 속 상상과 환상 성분은 중국 예술 창작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단언한다.³¹⁾ 楊實誠(1989)은 “모든 신화는 상상을 이용하거나 상상의 도움으로 자연력을 정복하거나 지배하고 자연력을 형상화한다. 이에 자연력이 실제로 지배당함에 따라 신화도 소실되어 버렸다.”는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역시 신화의 환상적 영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류는 신화로 세계를 해석하는 것에서 이성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중국의 과환 역시 탄생에서 서구 과환소설의 영향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중국 특색의 신화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는 주장은 當代 과환에 있어 중국의 전통적 사유의 중요한 역할을 부각한 일면이라 하겠다.³²⁾ 과환에 대한 王富仁

29) 이철승, <근대전환기 중국철학계의 연구 동향과 특징: 유가철학과 마르크스주의철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양사회사상》 18권 4호, 2015, 288쪽.

30) 鄭文光, <科學文藝雜談>, 黃伊主編, 《論科學幻想小說》, 科學普及出版社, 1981, 47頁.

31) 周揚, <科學和文學要結合>, 《文藝報》 第1期, 1984, 王泉根主編, 앞의 책, 14頁 수록.

(1992)의 견해 역시 모든 민족 문화의 최초의 표현 형태는 신화이며 그것은 곧 환상의 산물이라는 근원적인 측면에서 출발한다. 즉, 환상이 내부 심령 활동의 진실성을 표상하는 매개가 되는 만큼 사람들은 환상을 통해 현실 세계의 불완전함을 알고 현실 세계를 개조하려는 의지를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류의 이성과 과학이 발전되기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그는 과환을 인류의 양대 특징(幻想과 理性 精神)에 대한 통일성과 인류 사유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구현된 결과³²⁾로 바라본다. 특히 그가 과환을 내재철학의 통일로 간주한 것은 과환에서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의심의 여지없이 전통적 중국성이라는 사실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³⁴⁾

요컨대 지금까지 과환 혹은 과학소설이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제기된 주장들은 각각의 개념 정의를 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을 뿐,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한 사례는 드물다. 이에 본 논자는 지식인 간의 논쟁으로부터 축출해 낸 공통점을 하나의 문화적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과환 혹은 과학소설 둘은 과학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 나온 생산물이다. 둘째, 중국 SF 창작이 서구 SF의 영향 아래 촉발되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인의 인식 상에서 과환의 환상적인 면모는 중국 전통성에서 축출된 과환을 이끌어 가는 또 다른 핵심 요소이다. 이에 근거해 본 논자는 當代 이래 과환이라는 용어가 중국 사회에 뿌리내릴 수

32) 楊實誠, 〈論科學幻想小說〉, 《科幻小說創作研究資料》 第3期, 1989, 王泉根主編, 앞의 책 수록, 76-77頁.

33) 王富仁, 〈談科幻小說〉, 《文學評論家》 第4期, 1992, 王泉根主編, 앞의 책, 71-89頁.

34) 이렇게 볼 때 중국 과환소설 속의 환상적 성분이 1950년대 러시아 과환문학의 정의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과환’이라는 용어가 러시아어 번역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윗암의 주장 역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 그의 주장은 과환이란 신시기에 접어들어 러시아 과환을 적극 수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번역 오용의 결과라는 주장과도 상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 바람. 郭建中, 〈關於Science Fiction的翻譯問題〉, 《上海科技翻譯》 第2期, 2004, 52頁.

있던 원인을 중국 전통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지식인들의 전통 의식에 대한 심리 침전의 결과로 귀결 짓고자 한다. 과학의 이성적 가치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억눌려야만 했던 중국 전통 문화의 가치는, SF라는 영역을 무대로 끊임없는 긴장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양자는 當代에 이르러 동등한 관계 수립을 통해 인식상의 발전적 전환의 길로 들어섰다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날 과학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반응 과정을 통해 중국 SF의 생성과 발전 흐름을 따라가 보기로 한다. 명칭 이래 ‘소설과 국가’ 혹은 ‘유토피아와 역사’가 상호 교환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 온 바, 이는 세계적 관심 속에 황금기를 구가하는 중국 과학과 聳進平 체제가 제시하는 “中國夢”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함이다.

2. 科幻으로의 전환과 그 사상적 의미

중국에서 과학이 지니는 중요한 사상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과학 개념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배제되어 온 것은 중국 과학 비평사가 그만큼 성숙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같은 현황 속에서 과학을 “억압된 현대성”의 측면으로 사유하는 주장이 중국 과학사의 발전에 유익한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이 중국 과학의 이론적 공백 상태에 대한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역사적 시점이든 각기 현실적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같은 기준으로 청말과 當代의 “科幻熱” 현상을 저울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말 이후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과학이 어떻게 當代에 이르러 미증유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는지 그 근본 원인에 다가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상술한 바, 먼저 當代 과학의 흥성을 과학이 전통과 서구에 의해 구축된 지식 담론을 중심으로 한 끊임없는 시대적 대화 속에 동참해 온 끝에 도달된 발전 결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할 수 있다. 또한 만칭 과학소설을 중국

근대 지식형 전환의 동력이자 그 과정의 일부로 바라보는 견해³⁵⁾처럼, 當代 과학의 변영이 암시하는 것 또한 그것에 내재한 새로운 세계관과 과학관이 계속해서 중국인의 세계와 자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실로 나아갈 수 있다. 지난 날 과학의 사상사적 함의에 대한 변천과 실제 중국 SF가 지나온 어제를 함께 놓고 살펴본다면 이 같은 사실은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일찍이 만청 과학소설이 과학에 의지한 구국에 호소함으로 민족의식의 소환과 민족 자부심의 배양이라는 집단성에 몰두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반면, 1933년 창작된 老舍의 《猫城記》는 민족 개개인의 도덕적 타락과 정신성의 부재에서 국가 쇠퇴의 원인을 찾음으로 매국적 반동소설로 간주된 역사가 있다. 이후 과학소설이 만청의 명성을 회복한 것은 수십 년이 지난 1950년대 러시아 아동 SF에 대한 적극적인 수입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가능해진 일로서, 이때부터 과학을 소재로 한 작품도 재창작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시기 이후 중국 과학에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가 국가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처럼 雙百方針(1956)으로 활발해진 SF 창작은 줄곧 단편이나 아동 영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³⁶⁾ 과학이라는 용어가 정착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그러나 1976년 四人幫 타도와 함께 맞이한 황금기 속에서도 소설이 과학 본연의 속성을 위반했는가의 여부는 과학의 존립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과학을 문학 혹은 과학에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비화됨으로써 “정신오염척결운동(清除精神污染運動)”의 희생양이 된 것은 바

35) 劉軍, 《晚清科學幻想小說與知識型轉變》, 北京大學學位論文, 2012, 28頁.

36) 당시 중국 과학은 마르크스주의를 근간으로 소비에트 이론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규칙을 따라야만 했다. 첫째, 기술 과학적 발전이 성취될 수 있다는 과학 정신에 대한 상상력이 풍부한 과정을 묘사해야 한다. 둘째, 계급투쟁으로부터 자유롭고 인류와 자연의 화해를 위해 헌신하는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미래를 묘사해야 한다. Yan Wu, 앞의 문장, 3쪽 재인용. 짐작되듯이, 진정한 과학자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복잡한 인간관계 없는 서사 드라마를 어떻게 묘사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중국 작가들에게 이 같은 요구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로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과학이 중국인을 지배하는 관념 문화로서 정치를 규제하는 강력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임은 말할 것도 없다. 당시 여파는 과학 작품 출간 금지는 물론 관련 잡지가 모두 정간되는 사건으로 이어질 정도로 과학의 발전에 막강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1991년 과학문학 전문 발행지 《科幻世界》가 국제 과학대회를 주최한 것을 계기로 과학은 다시 한 번 재기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때 출현한 新生代 작가 대다수는 오늘날 중국 과학이 세계화의 반열에 오르도록 이끈 주요 구성원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도전성으로 개인을 위한 창작에 천착함에 거듭 발전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청말 과학소설의 흥성, 《猫城記》에 대한 배척, 아동 과학의 흥성, 관제화에 속박된 과학, 대다수의 新生代 작가의 등장과 當代 과학의 황금기에 이르는 개괄적 역사의 흐름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짐작해볼 수 있다. 첫째, 청말 이래 상당기간 중국 과학소설에 대한 응용이 부재했다는 사실은 중국에서 그것의 저변을 이루는 과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과학소설에 쓰인 과학 사이에 존재하는 좁혀지지 않는 간격을 방증해 주고 있다. 둘째,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중국 當代 과학이 맞이한 황금기는 과학에 대한 중국 사회의 사상적 인식과 지식인의 문화적 인식이 정교하게 맞물려 이루어 낸 성과이다.

한편, 李益順(2014)은 중국 근현대사는 중국 전통 사상사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格致가 과도기를 거쳐 과학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과정에 집중해 온 역사로서, 과학의 승리는 전통과 현대와의 지난한 대치의 결과인 동시에 사회 문화적 심리 상태 그리고 가치 경향과 관련이 있다 서술한 바 있다.³⁷⁾ 물론 중국에서 ‘과학’이 사회 문화적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그동안 중국 근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보편적 관점이라 할 수 있는 “格致가 과학에 자리를 내어주었다”는 표현에는 좀 더

37) 李益順, 〈論20世紀初期期刊中的科學觀念—以《新民叢報》爲中心〉,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第43卷 01期, 2014, 155頁.

신중한 태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중국에서 크고 작은 정치적 사건이 SF에 미친 절대적인 영향력은 물론이고 “科玄論爭”과 1990년대 “文化熱”에서 다시 대두된 유학 부흥론, 그리고 2003년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제기된 “科學發展觀” 등 과학 개념에 관련한 수용사를 돌이켜본다면 중국에서 전통 사상이 서구 과학에 완전히 대체되었다는 표현은 설부른 판단이라 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사상의 도래를 가속화하기 위해 옛 것을 타도하려는 중국 지식인의 반복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들은 오랜 시간 중국 사회 속에서 끊임없는 상호 작용과 협상을 통해 자신의 면모를 발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백여 년간 중국에서 SF가 지나온 역정을 돌이켜 볼 때 역시 결과적으로 전통적 중국 관념은 반복된 부침 속에서도 예전에도 오늘날에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음을 증명해 내고 있지 않은가.

(1) 전통의 해체와 사상의 再建(?)

처음 중국에 서구의 과학이 수입된 것은 명청 시기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서이다.³⁸⁾ 格致라는 말로 서구의 자연과학을 전문적으로 지칭하기 시작한 Matteo Ricci는 格物, 致知, 窮理 등의 개념에 빗대어 자연과학을 설명함으로써 개혁파 지식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致知는 물리를 밝히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격물궁리의 방법을 이용하여 사물(자연)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 바로 格致學이라 규정되기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선교에 목적을 두고 진행된 서구 과학 관념의 새로운 개념 정립은 중국 전통 학술 속에 깊이 뿌리내린 義理적 格致學이 物理적 格致學에 의해 쉽게 대체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실제 만청 최초의 근대적 전문과학 잡지 《格致匯編》(1876)의 내용을 보면, 만청 지식인들은 서양의 格致學과 중국 유가의 格致學 비교를 통해 서구 과학을 파악하고 중국의 부강

38) 명청 시기 중국에서 格致學이 서구의 과학으로 대체되기까지 중국 지식인의 인식에 근거한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주로 다음의 논문을 참고해 정리하였다. 한성규, <중국 근대 格致學의 變遷과 中西 格致學 비교>, 《한국철학논집》 18호, 2006, 428-435쪽.

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만을 수용하고자 했던 사실이 목격되고 있다. 특히 중서 학술 정신의 본질적 다름에 대한 기술로 큰 사상적 의미를 갖는 《格致書院課藝》에서는 “中西가 서로 같은 부분이 있는 것은 우연에 의한 것일 뿐이고 中西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그 나아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³⁹⁾의 문장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중국 지식인의 사유를 대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1896년 嚴復의 진화론 소개로 ‘과학’이 ‘철학’에서 독립하며 독특한 학술 영역을 형성하였다고는 하지만, 과학에 대해 비교적 창의적인 관점을 견지한 것으로 평가되는 간행물 《江蘇》의 문장에서조차 과학과 철학의 불가분의 관계는 어김없이 발견되고 있다.⁴⁰⁾ 구체적으로 과학과 格致 개념의 함의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진 것은 유신파 지식인들이 일본으로부터 과학이라는 말을 빌려온 시점으로서, 이 시기는 전근대적인 格致 개념이 현대적 개념인 과학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고, 전통 중국 지식인의 과학 인식이 현대적 관념으로 이행된 소위 “윤리학에서 물리학으로의 轉回”⁴¹⁾가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훗날 중국에서 格致가 과학에 주도적 자리를 내어줄 수 있었던 원인을 우리는 유가의 治國平天下 사상을 논한 경전 《大學》에 실린 문장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격물치지에 대한 당시 지식인들의 해석이 도덕 윤리적인 부분 이외에도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있었던 것처럼, 학자들의 격물치지에 대한 사상도 점차 외재적이고 비윤리적이며 경험적이며 실재적인 대상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유입된 것이 바로 청말 과학소설이다. 청말 과학소설을 바라보는 전환기 지식인들의 인식상의 혼란은 충분히 예상된 바였다.

39) 한성구, 앞의 논문, 450쪽. 재인용.

40) 侯生, 〈哲學概論〉, 《江蘇》 第3期, 1903, 52-53頁.

41) 丸山眞男, 《福沢における実學の轉回》, 『福沢諭吉の哲學』, 東京: 岩波書店, 2001, 46頁. 안대욱, 〈五四시기 ‘科學과 人生觀’ 論爭과 科學主義 再論—中體西用적 과학관과 계몽과학관의 대비를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제80집, 2012, 170쪽 재인용.

이에 梁啓超는 1902년 프랑스 작가 Camille Flammarion의 작품 The Last Days of the Earth 《地球末日記》를 번역한 후의 감상에 대해, “《地球末日記》는 과학상 가장 정확한 과학적 법칙(學理)이 철학 상 가장 고상한 사상과 어우러져 완성된 것으로서, 실로 근대에 나온 대단한 기서라 하겠다.”⁴²⁾라 쓰고 있다. 게다가 당시 《新小說》의 광고에서 Jules Verne의 20000 leagues Under the Sea 《海底兩萬裡》가 Plato의 Republic 과 같은 文類로 분류되었던 것처럼, 이후 “哲理科學小說⁴³⁾”에서 과학소설에 이르는 명칭상의 변화는 자연 우주와 사회 정치라는 두 방면의 理想을 구분해야 하는가를 두고 생겨난 지식인의 곤혹을 증명해 준 셈이다.

“이 책은 오로지 구구한 政見을 발표하고자 했음에, 애국 의식이 투철한 군자에 적합하다 하겠다. 글 속의 우언 대부분은 몹시도 깊은 생각을 필요로 하니 대강 읽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주관적 견해에 지나지 않기에 한 사람의 사견을 듣고 그것을 믿고 반드시 행할 필요는 없다. (중략) 그것을 한 번 읽어보고 나면 소설인 것 같으면서 소설 같지 않고, 또 야사 같으면서 야사 같지 않으며, 논저 같으면서도 논저 같지 않으니 어떤 문제라 해야 할지 몰라, 실로 보며 실소하게 된다. (중략) 글 속에 법률, 각종 제도, 연설, 논문 등이 많이 실려 있어 문장이 길고 장황하고 지루한 것이 조금도 재미가 없기에 독자의 바람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내용 속에 담긴 뜻을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랄뿐이다.”⁴⁴⁾

42) 以科學上最精確之學理，與哲學上最高尚之思想，組織以成此文，實近世一大奇著也。梁啓超，〈《世界末日記》譯後語〉，《新小說》第1號，1902年。陳平原，夏曉虹編，《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第一卷)1897-1916》，北京大學出版社，1997，58頁 수록。

43) 〈中國唯一之文學報《新小說》〉에 의하면 哲理科學小說是 철학과 格致學을 상세히 설명한 새로운 소설의 유형이다. 이처럼, 서구에서 수입된 과학은 중국 전통 철학 개념에 대한 사상적 의미가 상당히 농후했다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중국에서 서구 과학소설에 대한 실천이 사상적 측면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던 이유이다. 新小說報社，〈中國唯一之文學報《新小說》〉，《新民叢報》十四號，1902。陳平原，夏曉虹編，같은 책，62頁 수록。

44) 茲編之作，專欲發表區區政見，以就在於愛國達識之君子，編中寓言，頗費單思，

혹자는 梁啓超가 자신의 작품에 팽배한 불확실한 문체적 특징을 언급한 내용이 《新中國未來記》의 소설로서의 성립여부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하지만,⁴⁵⁾ 일찍이 그가 소설의 중요한 효용성 중 하나로 장엄함을 싫어하고 해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정에 부합함을 꼽았던 사실⁴⁶⁾을 고려한다면, 이를 지나친 정치 사회적 성향이 초래한 결과를 바라보는 작가로서의 담담함으로 바라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다시 말해 梁啓超에게 있어 과학소설은 사상계몽의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크지만, 상기 그가 창작한 중국 최초의 정치 과학소설 《新中國未來記》⁴⁷⁾에 대한 창작 소회의 글에도 드러나 있듯이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과학소설이 소설로서 갖추어야 할 예술성이나 구성 등의 내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魯迅이 서구 과학소설을 번역하는 데 있어 자신의 가치관이 투영된 번역 방법으로 인해 “科學과 人情의 갈등⁴⁸⁾”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했던

不敬草草。但此不過臆見所偶及，一人之私言耳，非信其必可行也。(중략) 一覆讀之，似說部非說部，似稗(稗)史非稗(稗)史，似論著非論著，不知成何種文體，自顧良自失笑。(중략) 編中往往多載法律，章程，演說，論文等，連篇累帙，毫無趣味，知無以廣讀者之望矣，愿以報中他種之有滋味者償之。梁啓超，〈《新中國未來記》緒言〉(1902)，《新小說》第1號，陳平原，夏曉虹編，앞의 책，54-55頁 수록.

- 45) 김은희, 〈梁啓超의 小說論 研究〉, 《중국문학》 19권, 1991, 127쪽.
- 46) 梁啓超, 〈譯印政治小說序〉(1898), 王運熙, 《中國文論選—近代卷(下策)》, 南京: 江蘇文藝出版社, 1996, 302頁 수록.
- 47) 《新中國未來記》는 대개 정치소설로 분류된다. 동시에 만청 과학소설의 범주에 포함되기도 한다. 그것이 중국 현실에 대한 고뇌를 바탕으로 미래 신 중국에 대한 정치적 구상을 표현함으로써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상상하고 사실인 듯 서술한 것이 Science Fiction의 요구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왕(王德威)은 《新中國未來記》를 과학 판타지의 측면에서 바라보며, 그것이 믿기 어렵고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정치 쟁점과 새로운 국가적 신화라는 관점에서 중국이 추진하는 현대화 계획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데이비드 왕, 〈중국의 작가들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가—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사이에서 중국 문학이 꾸는 꿈〉, 《하버드 대학 중국 특강》, 2018, 355-356쪽.)
- 48) 孫堯天, 〈科學與人情的糾葛—論路尋的科學小說翻譯〉, 《文藝研究》 5期, 2017, 56-66頁 참고.

것처럼, 梁啓超의 작품 역시 한 개인의 가치관과 시대와의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과학소설을 생산해 낸 작가의 과도기 창작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903년 魯迅은 프랑스 작가 Jules Verne의 작품 *From the Earth to the Moon* 《月界旅行》을 번역한 후 작성한 다음의 문장에서 과학소설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과학으로 人情을 다스려라. 만남의 기쁨과 헤어짐의 슬픔 그리고 모험을 이야기한다면 모두가 그 안에 착종될 것이다. 그 안에 어떤 결점이나 잘못이 섞여 있다고 해도 사회 폐단이 정확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19세기에는 달나라 사람들이 진실로 남달리 뛰어난 사람들이라 여겼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문장을 쓰는 것은 반드시 과학적 법칙(學理)에 부합해야만 한다. 헛되이 근거 없는 것들을 습득하지 말아야 한다. 과장하여 궤변을 늘어놓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한다.(중략)고로 힘껏 과학적 법칙(學理)을 취하되 장엄한 정취를 없애 해학적인 정취를 이루면, 독자의 이목을 끌어 깨닫게 하고 힘들이지 않고 사색도록 함으로 인해 필히 부지불식간에 지식을 얻도록 할 것이다. 전해 내려오는 미신을 타파하고, 사상을 개량하며 문명에 도움이 되는 위대한 효능이다.⁴⁹⁾

두 페이지가 남짓 안 되는 짧은 문장 속에서 그의 관심은 작품에 대한 평론보다 과학소설에 대한 특징과 기능, 의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처음 문단에 제시된 내용에 살펴볼 때 魯迅은 과학소설의 발생을 역사가 침전하고 진화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그의 논리는 과학소설의 의의도 독자의 관심을 끄는 오락 기능이 효과적으로

49) 經以科學，緯以人情。離合悲歡，談故涉險，均總錯其中。間雜譏彈，亦復譚言微中。十九世紀時之說月界者，允以是爲巨孽矣。然因此事屬詞，必洽學理，非徒撫山川動植，侈爲詭辯者比。(중략)故掇取學理，去莊而諧，使讀者觸目會心，不勞思索，則必能於不知不覺間，獲一斑知識，破遺傳之迷信，改良思想，補助文明，勢力之僞，有如此者！魯迅，〈《月界旅行》辨言〉，《魯迅全集》第10卷，北京：人民文學出版社，2005，164頁。

사람들의 정신에 깊이 침투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에는 그것이 긍정적인 사회적 효능을 발휘하기에 이를 것이라는 일종의 인과 법칙에 의지한 서술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시기 魯迅의 관점이 “自強保種”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호소하는 嚴復의 진화론에 감화 받은 것이었다고는 해도 이후 서구의 근대 자연과학을 순수한 지식문제가 아닌 사상과 윤리문제로 받아들임으로써 사상적 변화를 겪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⁵⁰⁾

혹자는 서양소설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과학소설이라고 말한다. 중국에는 지금껏 이러한 류의 소설은 없었거늘 어찌 그것이 서양소설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중략) 만약 훌륭한 중국소설가들이 과학을 쓴다면, 나는 그것의 우월함이 반드시 서양 과학소설을 크게 넘어설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소설이란 일종의 문학이다. 문학의 성질은 허구에 가까운 것이 어울리지, 사실을 증명해 내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과학소설은 결국 소설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에 설 수는 없을 것이다.⁵¹⁾

중국에 철리소설은 특히나 희귀하다. 내 생각에 철리소설은 사실 과학소설과 서로 치환될 수 있을 만큼 연관되어 있다. 과학은 명백하며, 철리는 더욱 명백하다. 과학소설이 많아지면 철리소설도 이에 따라 많아질 것이다.⁵²⁾

50) 이주노, 〈魯迅과 近代思想—進化論의 수용과 극복을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32권, 2003, 279-281쪽.

51) 或曰：西洋小說尚有一特色，則科學小說是也。中國向無此種，安得謂其勝於西洋乎？(중략) 若以中國大小說家之筆叙科學，吾知其佳必遠過於西洋。且小說者一種之文學也。文學之性，宜於凌虛虛不宜於征實，故科學小說，終不得在小說界中占第一席。俠人，〈小說叢話(節錄)〉, 《新小說》 第13號, 陳平原, 夏曉虹編, 앞의 책, 93頁 수록.

52) 至若哲理小說，我國尤罕。吾意以偽哲理小說實與科學小說相轉移，互有關係：科學明，哲理必明；科學小說多，哲理小說亦隨之而夥。定一，〈小說叢話(節錄)〉, 《新小說》 第15號, 陳平原, 夏曉虹編, 앞의 책, 99頁 수록.

1905년 《新小說》 제13, 15호에 실린 〈小說叢話〉 속 각각의 문장에서 확인되는 것 역시 당시 서구 과학소설을 이해하는 지식인들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의 논의는 과학을 객관적 학문으로 바라볼 것인가 혹은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세계가 상보적으로 존재하는 체계로 이해할 것인가라는 과학을 받아들이는 서로 다른 관점을 축약해 내고 있었다.

1906년 만청 시기 과학소설에 관한 중요한 논문 《論科學小說之發達可以辟舊小說之荒謬思想》에 쓰인 내용에 따르면, 과학은 일종의 “일반적인 규율에 따라 정의를 밝히는 것”으로서, 그 실증을 구하는 연구 정신은 《十洲記》, 《搜神記》, 《幻異志》, 《西遊記》 등의 고대 神怪志異 소설에 표현된 미신과는 구분되어야 할 대상이다. 반면 미신은 “진리로써 환상을 꾸짖을 것이며, 실험으로써 허구적 이야기를 고침”으로 철저히 제거되어야 할 근거 없는 사상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논자가 과학과 神怪 소설 속의 이야기를 비교함에 있어, “기구 풍선은 《西遊記》속 哪吒의 풍화륜과 같고, 자동차와 철로는 《水滸傳》속의 戴宗의 神行法과 흡사하며, 탐정의 변신술은 孫悟空이 일흔 두 번 변화하는 것과 닮았으며, 해저여행과 땅속 여행은 孫悟空이 땅 속으로 이동하는 도술을 부려 오행을 행하는 것과 유사하다.”⁵³⁾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諸子의 책을 읽고 있다면 오늘날 과학과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적고 있는 것은, 스스로 과학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神怪 소설은 말할 필요도 없는 미신이라 반드시 추방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神怪 속 법술은 공상이 아닌 과학의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며, 또 춘추전국 시대의 사상 속에도 근대 과학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의 관념은 상당히 모순적이다. 요컨대, 만청 과학소설을 화두로 드러나는 모순적 과학관은 格致學에서 과학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 지식인들의 복잡한 사회 문

53) “輕氣球就像哪吒太子的風火輪，汽車和鐵軌就像戴宗的神行法，偵探的易容術就像孫悟空的七十二變化，海底旅行和地底旅行好似土遁法。”《新世界小說社報》第2期，1906. 劉軍， 앞의 논문， 재인용.

화적 심리가 투영된 결과로서, 향후 중국 SF는 창작경향의 측면에서 분기될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23년 “科玄論爭”에 대한 최근의 논의가 과학의 승리 원인을 전적으로 중국의 유교적 사유방식에서 찾고 있는 사실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林毓生은 과학주의의 유행이 실은 전통문화의 사상 방식 즉, 전통 유가의 일원론적 사상 방식에 기반 한 결과였다 하였고,⁵⁴⁾ 李澤厚는 林毓生의 논의를 발전시켜 과학의 승리가 “실용이성”이라는 중국 지식인들의 전통적인 심태와 정신에 아주 잘 들어맞았음을 논증해 내고자 했다.⁵⁵⁾ 특히 林毓生은 중국인들은 어떤 도덕과 정치문제에 맞닥뜨릴 때 기본적으로 사상적 역량과 그것의 선두적 지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중국에서 유행한 과학주의는 장구한 시간동안 중국인의 정신을 지배해 온 정치권력과 문화 질서가 결합한 “大一統” 구조의 현대적 변형이라 이해했다. 이에 유일한 변화라고 한다면 “獨尊儒術”이 “科學霸權”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뿐이라 단언한다.⁵⁶⁾ 이에 따라 李澤厚는 “科玄論爭”의 내면적 의의를 그것이 중국인에게 있어 이데올로기적 관념이나 신앙을 수렴하는가를 둘러싼 논쟁이었다는 사실에서 찾았다.⁵⁷⁾ 심지어 과학과의 현 학파, 양측의 입장에는 중국에는 과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中國無科學說”이 전제되어 있다⁵⁸⁾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우리는 1970~80년대 다시 제기된 과학논쟁 속에서 중국의 마르크스주의적 과학 철학관이 ‘철학의 과학에 대한 지도적 역할’로 규정된 사실과 마주할 수 있다. 이에 혹자는 이 시기 과학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선험원리가 경험원리를 규제하는’ 인식 틀이 점차 ‘경험과 인식의 동등한

54) 林毓生, 《中國傳統的創造性轉化》, 三聯書店, 1988, 156頁.

55) 리쩌허우 저, 김형중 옮김, 《중국현대사상사론》, 한길사, 2005, 124쪽.

56) 林毓生 著, 穆善培譯, 《中國意識的危機—“五四”時期激烈的反傳統主義》, 貴州人民出版社, 1986, 325-326頁.

57) 리쩌허우 저, 김형중 옮김, 앞의 책, 116쪽.

58) 안대욱, 〈五四시기 ‘科學과 人生觀’ 論爭과 科學主義 再論—中體西用적 과학관과 계몽과학관의 대비를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제 80집, 2012, 170쪽.

상관관계'를 강조하는 인식론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로 이해하였다.⁵⁹⁾ 아울러 當代 중국 사회는 “인간의 철학”이라는 외침 속에 全盤西化論까지 가세하며 지난날의 역사적 고민을 또 다시 반복해야만 했다. 當代 과학이 중요해지는 것은 이처럼 그것이 표현하는 바가 바로 사상으로서의 과학을 축으로 전통 格致學과의 상호 작용 속에 제기된 문제점을 고스란히 각인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2) “中國夢”과 “科幻熱”: 소거된 科學

일찍이 2000년 Steven Mosher는 그의 책 *Hegemon*을 통해 ‘아시아와 세계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음모(China’s plan to dominate Asia and the world)’라는 부제로 중국의 세계 평화 위협론(中禍論)을 제기하며, 공산당 독재 체제가 세계를 위협에 빠트릴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19세기 유럽에서 제기된 黃禍論의 연장으로서 백여 년 역사에 대한 반복이라는 사실인데, 그런 만큼 상기 책은 서구의 동방 세계에 대한 경계심의 표출로도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중국의 역사적 불만이 편집증적 민족주의로 뭉쳐져 그들만이 옳고 정당하다는 이념으로 나아갔다는 그의 이해는 중국의 문화적 특수성에 기댄 꽤나 치밀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경제 발전으로 인류보편의 가치가 존중되는 국가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는 중국만의 착각이라며 중국의 세계 일인자로서의 가능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십여 년의 시간차를 두고 시작된 2013년 習進平 정권시대로 자리를 옮겨 習進平이 강조하는 대동 세계(The Great Unity)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편성된 민주와 자유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비판받고 있는 사실에 견주어 논의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서로 돕고 즐겁게 일하며 차별도 전쟁도 없는 대동 세계가 공산주의의 이상 세계라 할 수 있는 만큼, 이는 2천 년 전 秦始皇의 독재 “大一統” 정치 이념이 전수된 결과로서 전통

59) 피경훈, <해방으로서의 ‘과학(과학)’—신시기(신시기) 과학담론의 사상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 《중국현대문학》 65호, 2013, 132쪽.

유가의 이상 세계를 대변하는 중국의 정치 이념으로 볼 수 있다 이야기한다. 실제 習進平의 지도이념은 2014년 혁명과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中國夢”의 실현이라는 정식 슬로건을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할 수 있다. 물론 “中國夢”이 전면적인 소강사회와 사회주의의 현대화라는 목표 실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 없는 정치구호라고 볼 수 있지만, 사회주의의 이상적 상태에 근접하는 발전 이데올로기로 사유되는 “科學發展觀” 실현에 대한 習進平의 접근 태도가 철저한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할 만한 부분이다.

먼저 科學發展觀이란 “인본주의(以人爲本)”를 핵심으로 전 인민이 발전의 성과를 향유하도록 하는 사회적 공평을 고려한 발전전략이자 정권과 사회의 안정 유지를 위한 시도로서 2003년 胡錦濤에 의해 처음 제기된 정책이다.⁶⁰⁾ 그러나 중국 고전에서 등장한 글귀를 인용한 “以人爲本”이라는 표현은 패왕의 과업 실현이 실질적 목적으로서, 인간은 다만 패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점에 유의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간을 중국 인민으로 대체할 수 있을 때, 현대 중국의 마르크스 사상에 있어서도 중국 인민은 여전히 피압박적인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존재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¹⁾ 이에 科學發展觀은 대개 마르크스주의의 當代化로 분석된다.⁶²⁾ 이후 胡錦濤는 과학적 접근이 경시되었다는 비판은 물론 정책적 실효를 보지 못한 채 중국 사회의 불안정성을 증대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물러나게 된다. 비록 科學發展觀이 習進平 체제로 계승되었다고는 하지만 科學發展觀을 대하는 그의 미온적인 태도는 중국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2012년 18차 당 대회 정치 보고에서 “향후 중국은

60) 이희옥, <새로운 중국모델의 대두와 지배이데올로기의 재구성: 과학발전관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통권 116호(겨울), 2007, 66쪽, 78쪽.

61) 秋石, <全面准确地理解以人爲本的科學含義>, 《求是》 第7期, 2005.

62) 黃楠森, <馬克思主義與“以人爲本”——回答以人爲本研究中的機點疑問>, 《中華魂》 第五期, 2004, 50-51頁; 王銳生, <“以人爲本”:馬克思社會發展觀的一個根本原則>, 《哲學研究》 第2期, 2004, 3-6頁.

폐쇄적이고 경직된 ‘옛 길(老路)’과 깃발을 바꾸는 ‘잘못된 길(邪路)’을 결코 가지 않을 것이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체계의 지도하에 중국의 특색 사회주의 기본제도를 고수하면서 ‘중국의 특색 사회주의 길’을 걸어갈 것”임을 강조⁶³⁾하였는데, 여기서 옛길이란 毛澤東 시대로의 회귀를, 잘못된 길이란 서구식 제도의 전면 도입을 의미한다.⁶⁴⁾ 2012년에서 2014년 일정 기간 국가주석에 오른 이후 習進平의 담화, 연설 등의 70여 편을 정리한 중요 문건에서 科學發展觀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두 세 차례 정도만 언급⁶⁵⁾되는 것 역시 기존 체제와의 차별성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이것으로 드러나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공산당의 전통성 유지를 위해 마르크스 교조주의를 따르기보다는 그들의 독자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이른 결과라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鄧小平에서 시작된 “中國特色社會主義”⁶⁶⁾로 논급되는 習進平의 정책은 과학 사회주의의 中國化이자 當代 중국식 마르크스주의로서, 전통 사회주의의 초월을 통해 중국 특유의 사상을 구축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2014년 9월 24일 공자탄생을 기념하는 국제학술 세미나에서 習進平이 “공자와 유학을 연구하는 것은 중국인의 민족적 특성을 알고, 오늘날 중국인의 정신세계의 연원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⁶⁷⁾라고

63) 이종화, <시진핑의 중국의 꿈(中國夢)과 과학발전관(科學發展觀)의 미래 발전>, 《중국과 중국학》 제23호, 2014, 112쪽 재인용.

64) 같은 논문, 112쪽.

65) 같은 논문, 114쪽.

66) “中國特色社會主義는 과학 사회주의의 이론적 논리와 중국 사회 발전의 역사적 논리의 변증법적 통일로서, 중국 대륙에 이식되어 인민의 뜻을 반영하고 중국과 시대의 발전·진보에 요구되는 과학 사회주의에 적응하는 것이다. 또한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사회주의의 현대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이다.(中國特色社會主義, 是科學社會主義理論邏輯和中國社會發展历史邏輯的辨證統一, 是根植於中國大地、反映人民意願、適應中國和時代發展進步要求的科學社會主義, 是全面建成小康社會, 加快推進社會主義現代化, 實現中華民族偉大復興的必由之路.)” 國務院新聞辦公室等編輯, 《習進平談治國理政》, 外文出版社, 2014, 21頁.

67) “研究孔子, 研究儒學, 是認識中國人的民族特性, 認識當今中國人精神是接歷史

말한 것을 계기로 전통 문화의 중요한 가치가 공식화되기에 이른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후 2015년 人民出版社에서 출판한 《習進平用典》의 책은 진정으로 習進平의 전통관을 연구하고 학습하려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풍조를 낳았는데, 특히 《中國知網》에서 習進平과 전통 문화를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2,500여건에 달하는 논문이 확인되고 있는 것은 當代 지식인들에게 역시 상기 주제가 커다란 화두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부분이다. 이에 중국에서 전통 문화가 대단히 중시되는 현상은 전통 문화를 중시하는 현대적 전형으로 풀이되고 있다.⁶⁸⁾

요컨대, 習進平의 중국 전통 문화관은 “當代 중국 문화 발전에 있어 고금의 변화에 통달함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중화문화의 정신 생명이 막힘없이 통하도록 했으며, 중국의 마르크스주의와 중화문화 전통 사이의 ‘전승 발전’의 관계를 뚜렷하게 나타내 주었다.” 또한 習進平이 중화 문명의 독특한 가치 체계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중화 민족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는 중국인의 마음속에 뿌리내려 은연 중 중국인의 사상 방식과 행위 방식에 영향을 끼쳐왔다.”고 말한 것은, 중화 민족의 현대적 부흥의 시대적 요구에 입각해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의 “근원”와 “명맥”으로서의 當代적 가치를 힘껏 긍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⁶⁹⁾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15년 중국 국가 부주석 李源潮가 과환 작가들과의 좌담회를 통해 科普科幻과 “中國夢”의 시대적 책임관계를 언급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 하겠다. 그런 만큼 해외 학자들은 1980년대 이래 포스트 공리주의 시대의 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當代 과환에 다시 한번 정치적 굴레를 씌우는데 망설임이 없다. 최근 중국 과환에 자주 등장하

來由的一個重要途徑。”王征國,〈習進平三維視野的傳統文化觀〉,《理論學習》11期,2014,5頁.

68) 方浩範,〈習進平用典中的傳統儒學觀探析〉,《退溪學論叢》第29輯,2017,239頁.

69) 方浩範, 앞의 논문, 258頁.

는 서구 여행이라는 소재 역시 중국의 정치적 입장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현대적 서구에 의해 수입된 사상과 관념을 향한 중국 지식 사유에 재교육을 가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중국의 자기 강화 독촉을 위한 국가주의로 연결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 혁명이라는 수 세기에 걸친 중국인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⁷⁰⁾ 그러나 當代 科換에 나타난 특징을 반드시 국가적 차원으로 승화시킬 필요는 없다. 일찍이 科換이 唯心主義로 빠지지 않기 위해 唯物主義에 대한 진지한 배움과 이를 근간으로 한 과학과 문학의 결합이어야 한다는 주장(周揚)처럼, 오늘날 當代 科換 작가들을 세계적 성장의 길로 인도한 원인을 우리는 대립적인 위치에 서 있던 두 영역에 대한 합리적인 병존 기회 마련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게다가 科換을 다른 소설처럼 정성들여 꾸며낸 어떤 실체에 대한 양상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한다면, 중국 科換은 언제든 정치적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쥐고 있는 실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이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 민족지상과 국가지상을 주지로 중국이 세계정치의 각축 속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골자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가치를 새로 평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편승해 작가들만의 고유한 영역을 개척해 나간 경우로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다. 다시 말해 이들 科換 속에 발견되는 역사적 발전이 불변의 미래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믿음의 서사는 다만 중국 당국의 제재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담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볼 때 “中國夢”에서 합리적인 개인 창작의 자유를 획득한 當代 지식인 그리고 중국이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거듭난 이 시대, 또 강력한 민족주의로 똘똘 뭉친 중국 대중의 들뜬 감정의 정교한 조합이야말로 當代 “科換熱”이라는 현상을 탄생시켰다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몇 년간 當代 科換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고학력 작가 군에 의한 軟科換 작품이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다.

70) Song, Mingwei, “Variations on Utopia in Contemporary Chinese Science Fiction”, *Science Fiction International Review of Science Fiction* 89, (2003): 93-99.

중국 학계에서는 Hard SF에서 Soft SF로 발전해 온 서구의 역사에 빗대어 중국 과학의 흐름을 硬科幻에서 軟科幻으로의 단순한 전환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인간에 관심이 있을 뿐 과학을 硬科幻이나 軟科幻로 구분하는 것에 회의적인 어느 과학 작가의 의견에 비추어볼 때, 서구의 화법에 기대는 것은 진지하진 못한 태도라 생각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전과는 달리 약화된 과학의 서사적 기능이 발견되는 작품을 굳이 과학으로 불러야만 한다면 “技術幻想小說” 혹은 “後科幻”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보다시피 이는 當代 과학에서 중국 문학 고유의 특징을 찾으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⁷¹⁾ 다수는 중국 當代 과학의 황금기가 미국 SF의 황금기와 닮아있다는 것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이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한 결과라 하였지만,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볼 때 1980년대 이래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 온 중국 과학은 자유 시장체제의 힘이 중국을 예전 세계 중심의 위치로 돌려놓을 것이라는 기대와 맞물려 이념적 발전이 결실을 이루어 낸 사례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중국 과학이 온전히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오늘을 맞이한 데에는 급격한 중국 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따라 인민들의 문화적 의식 수준이 고양되고 과학 본연의 가치를 인식한 원인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 과학은 여전한 지식인들의 사상적 구현으로서 지난날을 교훈삼아 소위 創造的轉化⁷²⁾에 상응하는 단계에 진입한 중국 사회에 대한 묘사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71) 徐勇, 〈科幻寫作的“當代性”與“日常生活化”—關於李宏偉, 夏茄和飛氣〉, 《文藝報》, 2017年 8月, 1-3頁.

72) 林毓生, 《政治秩序與多元社會》, 臺北: 聯經, 1989, 146쪽. 새로운 패러다임은 중국의 전통문화가 창조적으로 전화할 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다.

Ⅲ. 결론을 대신하여

“1900년 이후 30년은 향후 중국 발전에 대한 다량의 실마리를 축약해내고 있었다.”⁷³⁾

중국에서 만칭 과학소설의 탄생이 과학과 문학, 그리고 역사 등 지식 유형의 다층적 상호 작용을 통한 근대적 전환에의 참여를 의미할 때, 그것과 중국의 사회 문화 발전과의 호응 관계는 익히 짐작되는 바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新生代 과학 작가 韓松이 “중국에는 특이한 현상이 대단히 많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과학’으로 전달될 수 있다. (중략) 오늘날 ‘科幻熱’은 劉慈欣의 국제상 수여와 관련이 있지만 사회적인 원인도 있다.”⁷⁴⁾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이에 본 논자는 명칭에서 當代에 이르기까지 중국 SF의 발전을 이끌어 온 요체가 ‘과학’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사상적 발전과 긴밀한 연관을 맺어 온 것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과학이 중국인의 내면적 문화사상과 상당한 관련을 맺고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當代 중국 과학은 우리가 오늘날 주목해야 할 주제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찍이 Needham은 현대 과학의 방법적 특성들이 중국 전통과학에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논증하며 과거 모든 문화권의 과학은 공통 목적지인 현대 과학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전제로 중국의 과학이 현대의 보편 과학으로 융화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⁷⁵⁾ 이 같은 그의 주장에 근거해 본다면 當代 과학에 재현된 중국인의 사유를 가로지르는 과학관은 서구 과학 사상과의 화합 그리고 배척이라는 관계를 통

73) 郭穎頤 著, 雷頤譯, 《中國現代思想中的唯物科學主義(1900~1950)》, 江蘇人民出版社, 1989, 7쪽.

74) “中國有很多特有現象, 都可以用科幻來表達, (중략) 這個科幻想或許和劉慈欣獲獎有關係, 也有社會原因.” <韓松: 中國有很多特有現象, 都可以用科幻來表達>, 《澎湃新聞》, 2017年 8月19日.

75) 劉鈍·王楊宗編, 《中國科學與科學革命—李約瑟難題及其相關問題研究論著選》, 遼寧教育出版社, 2004, 13-22頁 참고.

해 내재적인 윤리 도덕을 중시하는 그들 전통 과학관의 가치가 발전적으로 구현된 결과로 보는 것도 가능하겠다. Needham이 제기한 보편 과학의 형성 과정에는 융합점과 초월점이 있어서 역사의 어떤 시점에는 서구의 어떤 과학 형식이 그리고 중국 형식이 융합하여 보편성을 갖는 현대 과학을 형성하기도 하고, 어떤 시점에는 서양 형식이 중국 형식을 초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의 사상의 중요한 현재적 가치도 중국인은 과거 수천 년 역사를 통해 이룩한 그들만의 과학 사상을 포기하고 서구에 기준한 과학 발전에 전적으로 동참해 왔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한 번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의 층위에서라면 중국의 근대화(modernization)를 과학화 혹은 서구화와 동일시하는 우리의 보편적 관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비록 당시 서구의 문화가 수많은 중국 지식인들의 사유 속에서 보편 과학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는 해도, 〈較少科學的近代化〉⁷⁶⁾에 실린 문장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중국의 근대화를 서구화 개념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컨대 수십 년간 이어진 내외부적 전쟁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중국 사회는 굴절된 근대화의 역사를 품고 다시 한 번 전면적인 구조적 변화에 도전하고 있다. 19세기 후반과 현재의 다른 점이라 한다면, 서구 과학주의와 기술만능에 대한 미신적 행위에서 탈피해 전통 문화 사상을 중시함으로써 중국화 된 근대화⁷⁷⁾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전통에 대한

76) Will은 중국인이 서구의 근대 과학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때 발생한 자연에 대한 인식은 유익하고도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줄 만한 변화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이것이 의심의 여지없는 근대화로의 전향이라는 표식이 된다는 것이 그의 요지이다. Pierre-Etienne, Will “Modernization Less Science? Some Reflections on China and Japan Before Westernization”, K.Hashimoto et al.eds., *East Asian Science: Tradition and Beyond*, Osaka: Kansai University Press, 1995, 33-48.

77) 羅榮渠는 현대화를 외래 문물의 충격과 중국의 반응으로 이루어진 복합체로서, 국가산업이 현대 공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그 과정에 놓인 전통과 현대성의 관계를 상호적인 관계로 이해한 것이다. (張岱年主編, 《回讀百年》第5卷, 大象出版社, 1999, 471頁 참고.) 張熙若은 〈全盤西化與中國本位的 문장을 통해 “현대화”의 의미를 중국에 없었던 것을 도입해

잘못된 이해가 가져 온 중화사상은 전 세계의 위협으로 감지될 만한 요소라고는 해도, 當代 過환 속에 구현된 전통적 사유를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는 태도는 전 세계인이 중국 문화의 가치의 고상함을 깨닫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낳았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해 當代 過환이 민족주의, 국가주의 재건과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독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타락, 인간의 존엄에 대한 경시 등의 문제와 함께 제시되는 중국의 전통 사상은 공고롭게도 當代 過환이 위기의 오늘을 살아가는 세계인에게 가치 있는 대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말할 수 있다. 물론 만칭 과학소설에서 시작해 當代 “過환열”에 이르는 사회문화적인 현상을 瞿進平的 정치체제와 완전히 일체화하여 바라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중국 過환이 갖가지 사회관계에 대한 종합으로 사유되는 것처럼 여기에는 작가군 및 독자층, 출판계 현황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 외에도 실제 當代 過환 작품 속에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인 디스토피아적 측면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텍스트 분석을 통한 실증 과정이 필수일 것이나 본 논문이 중국 過환의 오늘과 내일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만큼, 過환 텍스트 분석을 통한 기타 사회적인 요소를 아우르는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는 다음을 기약하기로 한다. 다시 말해 중국 過환의 어제와 오늘을 되짚어 보며 진행된 “용어논쟁”에 관한 논의는 충실한 이론이 부재하는 중국 過환이 마주한 난점의 발단이 되는 것은 물론 중국 過환의 현재를 말해주는 위한 가장 타당한 예증이라는 사실을 역설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치열한 “용어논쟁”에 존재해 온 사회문화적 요소를 짚어냄으로써 當代 중국 過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중국 過환 텍스트 분석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이상 이성만으로 지배될 수 없는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삶을 삶답게 이끄는 것은 무엇인지 나아가 근대화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같은 질문 앞에서 중국

중국의 실정에 맞게 합리화, 적용화 하는 작업이라 분석하였다. 張岱年主編, 《回讀百年》第2卷, 大象出版社, 1999, 688頁 참고.

의 사례로 부터 그 사유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참고문헌>

- 김은희, <梁啓超의 小說論 研究>, 《중국문학》 19권, 1991.
- 노연숙, <1900년대 과학 담론과 과학 소설의 양상 고찰>, 《한국현대문학 연구》 37, 2012.
- 리찌허우 저, 김형중 옮김, 《중국현대사상사론》, 한길사, 2005.
- 서유진, <근대의 황홀과 공포— 청말 민초 공상과학소설과 망국멸종의 환상서사>, 《중국현대문학》 제84호, 2018.
- 스티븐 모셔 저, 심재훈 역, 《헤게몬: 아시아와 세계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음모》, 서울, 모티브, 2003.
- 안대옥, <五四시기 ‘科學과 人生觀’ 論爭과 科學主義 再論—中體西用적 과학관과 계몽과학관의 대비를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제 80집, 2012.
- 오승렬, 《중국의 발전과 거시경제 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2007.
- 왕더웨이 지음, 김혜준 옮김, 《시노폰 담론, 중국문학》, 학교방, 2017.
- 이상화, <1923년 中國의 ‘科學과 形而上學 論爭’에서 나타난 儒敎的 思惟方式 研究—陽明學과 朱子學의 差異를 中心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35, 2007.
- 이주노, <魯迅과 近代思想—進化論의 수용과 극복을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32권, 2003.
- 이중화, <시진핑의 中國의 꿈(中國夢)과 과학발전과(과학발전관)의 미래 발전>, 《중국과 중국학》 제23호, 2014.
- 이철승, <근대전환기 중국철학계의 연구 동향과 특징: 유가철학과 마르크스주의철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양사회사상》 18권 4호, 2015.

- 이희옥, 〈새로운 중국모델의 대두와 지배이데올로기의 재구성: 과학발전관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통권 116호(겨울), 2007.
- 테드 벤턴, 이언 크레이브 지음, 이기홍 역, 《사회과학의 철학: 사회사상의 철학적 기초》, 한울 아카데미, 2014.
- 피경훈, 〈해방으로서의 ‘과학(과학)—신시기(신시기) 과학담론의 사상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 《중국현대문학》 65호, 2012.
- 하버드대학 중국연구소 지음, 이은주 옮김, 《하버드대학 중국 특강》, 미래의 창, 2018.
- 한성구, 〈중국 근대 格致學의 變遷과 中西 格致學 비교〉, 《한국철학논집》 18호, 2006.
- 陳平原, 夏曉虹編, 《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第一卷)1897~1916》, 北京大學出版社, 1997.
- 鄧聿文, 〈胡溫的政治遺產〉, 《學習時報》, 2012年 9月2日.
- 方浩範, 〈習進平用典中的傳統儒學觀探析〉, 《退溪學論叢》 第29輯, 2017.
- 郭建中, 〈關於Science Fiction的翻譯問題〉, 《上海科技翻譯》 第2期, 2004.
- 國務院新聞辦公室等編輯,《習進平談治國理政》, 外文出版社, 2014.
- 郭穎頤著, 雷頤譯, 《中國現代思想中的唯物科學主義(1900~1950)》, 江蘇人民出版社, 1989.
- 侯生, 〈哲學概論〉, 《江蘇》 第3期, 1903.
- 華道一, 〈科學小品和大眾教育〉, 《太白》 1(11), 1935.
- 黃海, 《臺灣科幻文學薪火錄(1956~2005)》, 五南圖書, 2007.
- 黃褸善, 〈是“科幻小說”, 还是“科學小說”?〉, 《上海科技翻譯》 4輯, 2003.
- 黃楠森, 〈馬克思主義與“以人僞本”—回答以人僞本研究中的機點疑問〉, 《中華魂》 第5期, 2004.
- 黃伊主編, 《論科學幻想小說》, 科學普及出版社, 1981.
- 姜維端, 〈這麼多年, 中國科幻走上了一條和西方主流科幻不同的道路?〉, 《澎湃新聞》, 2017年 8月18日.
- 李益順, 〈論20世紀初期期刊中的科學觀念—以《新民叢報》僞中心〉, 《湖南

- 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第43卷 01期, 2014.
- 林毓生, 《政治秩序與多元社會》, 臺北: 聯經, 1889.
- 林毓生, 《中國傳統的創造性轉化》, 三聯書店, 1988.
- 林毓生, 穆善培譯, 《中國意識的危機——“五四”時期激烈的反傳統主義》, 貴州人民出版社 1986.
- 劉鈞·王楊宗編, 《中國科學與科學革命: 李約瑟難題及其相關問題研究論著選》, 遼寧教育出版社, 2004.
- 劉軍, 《晚清科學幻想小說與知識型轉變》, 北京大學學位論文, 2012.
- 魯迅, 《魯迅全集》第10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5.
- 栾偉平, 《小說林社研究(下)》, 花木蘭文化出版社, 2014.
- 穆木天, 〈心境主義的文學〉, 《平凡集》,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
- 秋石, 〈全面准确地理解以人僞本的科學含義〉, 《求是》第7期, 2005.
- 松鷹, 〈科學小說談〉, 《成都科普研究所》, 2017.
- 孫堯天, 〈科學與人情的糾葛——論路尋的科學小說翻譯〉, 《文藝研究》5期, 2017.
- 習進平, 〈在紀念孔子誕生2565周年國際學術研討會暨國際儒學聯合會第五屆會員大會開幕會上的講話〉, 《人民日報》2014年 9月25日.
- 徐勇, 〈科幻寫作的“當代性”與“日常生活化”——關於李宏偉, 夏茄和飛氣〉, 《文藝報》, 2017年 8月.
- 萬一知, 〈魯迅與太白半月刊〉, 《廣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0.
- 王銳生, 〈‘以人僞本’: 馬克思社會發展觀的一個根本原則〉, 《哲學研究》第2期, 2004.
- 王泉根主編, 《現代中國科幻文學主潮》, 重慶出版社, 2011.
- 王運熙, 《中國文論選——近代卷(下策)》, 南京, 江蘇文藝出版社, 1996.
- 王征國, 〈習進平三維視野的傳統文化觀〉, 《理論學習》11期, 2014.
- 汪志, 《論科學小說》, 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89.
- 張治, 〈晚清科學小說芻議——對文學作品及其思想背景與知識視野的考察〉, 《科學文化評論》第6卷 第5期, 2009.

- 吳岩,〈論科幻小說的概念〉,《昆明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第26輯,2004。
吳岩主編,《賈寶玉坐潛水艇—中國早期科幻研究精選》,福建少年兒童出版社,2006。
- 張岱年主編,《回讀百年》第2卷第5卷,大象出版社,1999。
- 張雲飛·李娜,〈習進平生態治理新理念的科學意蘊〉,《湖湘論壇》,2016。
- Etienne, Pierre. “Will Modernization Less Science? Some Reflections on China and Japan Before Westernization”. Hashimoto, K. et al. eds. *East Asian Science: Tradition and Beyond*. Osaka: Kansai University Press, 1995.
- Le Guin, Ursula K. *The Left Hand of Darkness*. New York: Ace Books, 1976.
- Liedl, Janice. “Tales of futures past: Science Fiction as a historical genre”, *Rethinking History* 19, no.2, (2015).
- Song Mingwei. “Variations on Utopia in Contemporary Chinese Science Fiction”. *Science Fiction International Review of Science Fiction* 89, (2003).
- Wu Yan. “Great Wall Planet’: Introducing Chinese Science Fiction”, translated by Wang Pengfei with Ryan Nichols, *Science Fiction Studies* 40.1, (2013).
-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fantasy>.
- <http://tech.huanqiu.com/news/2015-09/7544129.html>.
-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771539.

<Abstract>

The Chinese society has strengthened after decades of internal tensions and external wars. With an epoch-making history of refracted

modernization, the Chinese society has challenged itself again to transform completely to bring about a structural change. If we were to discuss the difference betwee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and the present, it would be the fact that China is seeking “Modernization of Sinicization”. It plans to fulfil this desire by pivoting on its rich culture and breaking away from emulating the West and adopting its methodologies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clerisy was deluded to believe that China could drive modernization by simply imitating Western culture. Subsequently, China was ushered into a new era. The initial idealistic belief of imitating Western culture has led to China treading an independent path to modernize on its own merits. Therefore, from a broader perspective, China has entered a stage of “true modernization” by focusing on socio-cultural development shaped by tradition instead of merely importing foreign approaches. It is paradoxical that the Chinese ideology brought about by a misconception of tradition is now perceived as a threat to the rest of the world. While we cannot doubt the significance of reflective thinking on science, which had originated from China’s traditional school of thought, people around the world are concomitantly aware of the value of Chinese culture. In other words, although contemporary Sci-Fi is recognized as a tool to reconstruct and strengthen nationalism, the belittlement of humanism, the decline of morality and the loss of human dignity have collectively attributed to the revitalization of contemporary Sci-Fi and its instrumentality to safeguard humanity. There are thre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contemporary “Sci-Fi Fever” phenomenon. First, the existence of modern clerisy who has gained rationality and freedom in creative thinking enabled by “The Chinese Dream”. Second, China has once again become a force to be reckoned

with. Third, the decrease in vulnerability, emanated from strong nationalism and unity of its population. Despite the relation between rational thinking and rational behavior, actions cannot be determined by reason alone. We can then learn from China what it means to be truly human.

Key Words : 당대 “과환열”(contemporary “Science Fiction fever”), 과환소설(Chinese SF), 용어 논쟁(term dispute), 환상(fantasy), 중국 전통사상(Chinese traditional thought), “중국몽”(“Chinese Dream”)